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물가지표 경계감 속 유가 급등..미국증시 약보합

- 미국증시 하락 전환: 주요 지수 약보합 마감
- 이번주 물가 지표 대기..유가 급등은 경계감 확대 재료
- 인텔, 상장 후 첫 증자-엔비디아, 월가 최대 AI 관련 금융 프로젝트

Summary

미국증시 약보합

현지시각 8월 10일 월요일 미국증시는 이번주 물가 지표 공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폭 하락.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1% 하락한 53,975.9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06% 하락한 7,753.11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26,605.36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34% 하락. 러셀2000 지수 역시 0.56% 하락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3.76% 상승.

(다우 -0.11%/ S&P500 -0.06%/ 나스닥 -0.32%/ 러셀2000 -0.56%)

호르무즈 재개방 논의 교착..유가 급등

곧 타결에 이를 것으로 여겨졌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임.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위협과 모욕을 중단할 것, 이란과 레바논/가자/예멘/이라크 내 동맹 세력에 대한 전쟁을 영구 종식할 것,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 이란 주변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 전쟁 피해 전액 배상을 비롯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 이란 동결 자산을 전면 해제할 것 등의 6대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 조건이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이는 결국 해상 봉쇄 완전 해제와 함께 원활한 통항, 그로 인한 유가 하락,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날 국제유가는 5% 이상 급등, WTI 기준 배럴당 80달러 선을 결국 다시 넘김.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부진한 고용지표로 현재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의 핵심 변수로 물가를 지목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번주 발표될 7월 물가 지표에 대한 주목도도 크게 높아져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유가를 끌어올리는 지정학적 이슈의 재확대는 시장 심리를 악화시킴.

한편 이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그 수가 얼마일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몇 번 (some number)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매파적 의견을 시장에 재차 전달함.

엔비디아, AI 생태계 금융 지원 본격화 나서나

엔비디아는 아폴로 글로벌, 블랙스톤, 블랙록, 브룩필드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그리고 KKR 등과 손잡고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 컨소시엄을 구성.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전체 자금 조달 규모는 5,000억 달러이며 월가에서 추진됐던 AI 관련 금융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 AI 경쟁이 반도체와 모델 개발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천문학적 자금 확보 즉 '금융 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공급 업체에서 AI 산업의 자금 조달을 연결하는 역할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읽힘. 실제 엔비디아는 최근 고객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업이 엔비디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이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는 이른바 '순환 금융' 구조에 대한 우려는 최근 빈번히 제기돼 왔음. AI 산업의 성장과 엔비디아의 매출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는 AI 투자의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 자칫 엔비디아와 금융사, AI 기업 모두에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는 시각. 이후 위험의 고리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건 현재 기존 기술기업들이 자체 자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인텔, 150억달러 유상증자 나서

이를 통해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 큰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밸류에이션 상승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만 하는 자본지출 규모와 자칫 무리한 자금 조달 행보가 시장의 주요한 우려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함. 이런 가운데 인텔은 이날 상장 이후 처음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향후 성장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주주가치 희석, 그리고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여러 방식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이날 주가를 끌어내림.

특징종목

S&P500 섹터 내 에너지(+4.63%) 섹터와 헬스케어(+1.68%) 섹터의 오름폭이 컸고 이외 소재(+0.68%), 통신 서비스(+0.68%) 섹터가 비교적 큰 폭 상승. 부동산(-1.23%), 유틸리티(-1.11%), 정보 기술(-1.10%) 섹터는 1%대 낙폭을 기록.

반도체주 대체로 약세

인텔(-4.06%)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발표함. 회사는 조달한 자금을 설비투자과 운전자본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인수단에는 30일간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그린슈)도 부여. 인텔은 피지컬 AI, 맞춤형 반도체, 첨단 패키징, 외부 웨이퍼 생산 등의 주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한편 견고한 재무구조와 투자적격등급 유지 방침을 지키기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힘. 블룸버그는 이번 인텔의 증자 결정 이후 오라클, 스페이스X,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마이크

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AI 인프라 부담을 채권투자자에게만 전가시키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으며 골드만삭스는 빅테크의 AI 관련 설비투자가 올해 7,650억 달러, 내년에는 1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올들어 3배 이상 상승한 주가는 다만 증자 이후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로 약세.

반도체주는 이외에도 브로드컴(-1.25%)은 미즈호에서 AI 반도체 사업의 성장 여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내놓았지만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9%)는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칩 테스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하락했지만 낙폭은 업종 내 여타 종목들과 비슷한 수준. AMD(-2.85%), 마벨 테크놀로지(-4.64%), 쉘컴(-3.39%),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16%), 램 리서치(-1.59%), KLA(-2.71%)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엔비디아(-2.86%)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월가 대형 자산운용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추진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있었음. FT는 엔비디아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3.59%)와 블랙스톤(+3.30%), 블랙록(-0.44%) 산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브룩필드 자산운용(+0.67%), 골드만삭스(-0.49%), KKR(+1.18%) 등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 조달된 자금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GPU를 구매하거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기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엔비디아가 5천억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대형 자산운용사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AI 인프라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 즉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공급 업체를 넘어 고객사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조달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재는 Open AI가 사용할 오하이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보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요 종목들의 약세 움직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2.94%)도 3거래일만에 약세 전환. 다만 지난 주말 여타 종목군 상승에도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던 샌디스크(+2.12%), 웨스턴디지털(+0.93%) 등의 스토리지 기업들은 반등.

빅테크 대체로 상승

빅테크 기업들은 종목별 이슈에 따라 희비가 갈림. 다만 마이크로소프트(+1.21%), 구글(+0.91%), 아마존(+1.31%), 테슬라(+0.70%), 메타 플랫폼스(+0.48%) 등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

메타 플랫폼스(+0.48%)는 주요 AI 시스템 대비 훨씬 작은 경량 오픈소스 에이전트 모델 '뮤즈 글리머'를 출시. 이 모델은 단일 GPU를 탑재한 맥이나 PC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기 내 에이전트 작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메타는 지난해 초지능 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입지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메타는 이어 조만간 일부 오픈소스 모델을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마이크로소프트(+1.21%)는 자체 AI 칩 마이아300을 9월 공개할 계획으로 내년 생산 확대와 TSMC와의 생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

트렌드포스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부품 가격 상승으로 애플(-1.53%)이 출시할 아이폰 18 시리즈의 완제품 원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트렌드포스는 3분기 아이폰 18 프로 256GB 모델의 원가가 2025년 같은 기간 출시된 신제품 대비 약 39% 높아질 것으로 추산. 한편 블룸버그는 애플(-1.53%)이 다음달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것이며 외부 5.5인치 디스플레이와 반으로 접히는 내부 7.8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제프리스는 애플에 대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하향. 2027년 올 글래스 아이폰 출시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전망.

이외 특징주

스트래티지(-2.68%)가 최근 비트코인 1,690BTC를 매도해 보유량이 842,137BTC에서 840,447BTC로 감소.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던 스트래티지가 일부 물량을 처분하고 현금 비축 규모는 크게 늘렸다는 소식. 주가는 약세.

퀀텀 컴퓨팅(-2.72%)은 마감 이후 실적 발표. 전분기 순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 부진. 다만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특히 항공우주와 정부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양자 기술 로드맵 기반 포토닉스 제품 판매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밝힘. 시간외 주가는 약세.

힘스 앤드 허스 헬스(+0.57%)는 전분기 매출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5% 내외 약세.

시오나 테라퓨틱스(-91.19%)는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실패 여파로 폭락. 반면 바이오기업 앱셀레라 바이오로직스(+34.78%)는 안면홍조 치료 후보물질이 중기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며 급등.

AST 스페이스모바일(-4.42%)과 라쿠텐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일본 J-LEO 위성통신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됨. 다만 주가는 하락. 시간외 거래에서도 낙폭 확대.

로켓 랩(-3.37%)은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62%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힘. 수주 잔고도 137%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 다만 인수 합병 계획이 지속 추가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간의 부담으로 반영.

버크셔해서웨이(+1.76%)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쌓여있던 현금을 본격 주식 투자에 투입하기 시작. 2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86억 달러 규모로 1년여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으며 이외 다른 주식 투자도 확대, 22년 이후 수년간 이어진 현금 축적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 이는 현금을 급격히 소진하는 전략이라기 보다는 높은 밸류 속에서도 가격 매력 확인되는 자산에 선택적으로 자본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정도로 해석되는 분위기.

스페이스X(+4.23%)는 지난 7일 상장 이후 첫 개인 투자자 매도 전환이 이뤄진 가운데 연이틀 상승. 이날 상승으로 공모가 135달러는 회복.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 난망..WTI 80달러 돌파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승 폭을 확대, 사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05% 급등한 배럴당 82.1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10월물도 5.18% 상승한 배럴당 87.72달러를 기록.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해협의 재개방은 이란이 직면하고 있는 해상 봉쇄 등 미국이 자행 중인 MOU 위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지난 50년간 발생한 수십만명의 무고한 시위대 살해와 미국 측 분쟁, 테러 희생자에 대한 이란의 배상 책임을 언급.

국제 금가격은 이날 국채금리 상승에도 최근 추격 매수세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추가 상승해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 금 선물 가격이 종가 기준 4,400달러를 상회한건 지난 6월 17일 이후 처음. 은 가격도 3% 가까이 추가 상승해 온스당 65달러를 회복.

유가 급등에 국채 금리도 반등

유가 상승과 함께 국채 금리도 반등. 이번주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유가는 결국 인플레이 강화 요인이라는 인식이 작용,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6bp 상승한 4.2410%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6.1bp 상승한 4.7067%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5.0bp 상승한 5.2510%를 기록.

이날 상승으로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전주말 고용 쇼크로 인해 하락하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귀함.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초반대로 다시 높였고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전일 50% 후반대에서 60% 중반대로 상승.

유가 급등, 엔화 반락..달러 반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교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대외 에너지 의존도가 큰 일본 엔화와 유로존 유로화가 약세. 특히 엔화는 지난달 말 이후 진행된 일본과 미국의 대대적 공조 개입 이후 (엔화 가치 기준) 최저 수준으로 하락, 달러-엔 환율 기준 공조 개입 이후 처음으로 159엔을 넘김. 유로-달러 환율도 하루만에 반락.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27% 상승한 99.808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종가에서 2.3원 상승했지만 1,418.4원에 거래를 마쳐 이틀째 1,410원대에 머무른 달러-원 환율은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5원)를 감안시 0.65원 하락, 1,417.1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